

전남

나주시 공직사회 '술렁'

8년만에 시장 교체, 인사 보복설 ... 살생부도 나돌아

일부선 인사 불이익 우려 전출 희망자도

나주시가 6·2 지방선거에서 8년만에 단체장이 바뀐에 따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상당수 공무원이 전임 시장의 부인인 무소속 후보를 위해 보이지 않게 선거에 개입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이 과정에 해당 공무원들이 '맛을 매'를 각오, 재선거 설을 유보하는 등 공직사회에 심각한 파벌이 조성되고 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소속 임성훈 당선자가 시장에 선출됨에 따라 무소속

시장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던 상당수 공무원이 취임후 인사에서 '좌불안석'인 상태다.

이 과정에 선거개입 사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당수 공무원들이 "현 당선자가 2~3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적발된 만큼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며 "어차피 인사가 불이익을 당할 바에는 스스로 면(面)으로 전출을 희망 하자"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전임 시장을 버티고

내놓고 지지하는 58명의 회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소문이 선거과정에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은 '어차피 현 당선자의 눈밖에 난 입장인 만큼 보복인사를 감안해 면으로 전출을 희망한 뒤 다음 기회를 모색하자'는 주장을 청내에서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

A모(6급) 공무원은 "전임시장의 부인이 당선될 것으로 판단해 상당수 공무원들이 모임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특히 해당 공무원들의 부인까지 무소속

후보자를 버티고 직접 수행하면서까지 선거를 도왔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직 내부에 정체불명의 살생부 명단이 나도는 등 극심한 파벌이 형성되고 있는 등 나주 공직사회가 어수선하고 있다.

이와관련 임성훈 당선자는 "공무원들이 자신을 돕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해당 당사자가 보복성 인사를 거론하는 등 조장하는 행태가 더 큰 문제다"며 "공직 내부의 파벌 조성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 내부에서 공공연히 선거개입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무관급 6~7명을 비롯해 6급 직원 20여명 등에 대해서는 민선 5기 출범후 진위 여부를 가려내 향후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담양군

농축산업·문화관광 접목 절실

민선 5기 담양군의 시급한 현안은 그동안 군수부제로 인해 실추된 지역 이미지 회복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담양군은 2년전 군수가 인사와 공사 관련 비리혐의로 구속되면서 군 컨트롤 타워 부재상태에서 지역 현안사업이 답보되고 지역이미지가 실추됐다.

주민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 을 위해서는 농축산업과 문화관광 레저산업을 접목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시 된다. 민선 3기 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축농원을 개발해 연간 유료 입장객 130만 명이 다녀가 9억원의 세수입과 관광객들로 인해 관내 식당과 특산물 판매장 등이 호황을



연간 130만명이 찾는 담양 축농원.

가로수 길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자전거와 장애인들을 위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정리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축농원~관방제집~메타세쿼이아

시와 담양군의 도·농 통합은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의회 의결과 법적 절차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농 통합 형태의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광역시 자치단체(구)와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와의 통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큰 과제다.

최형식 군수 당선자는 "농축산업과 문화관광레저산업, 공해 없는 첨단산업 등 3대 핵심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아 군민 1인당 '지역 총생산량'(GRDP)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고, 앞으로 10년 이내 3만 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등 8대 핵심사업을 담은 '뉴 담양플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광주시와 통합 문제 주민 의사 반영 절대적

축농원 등 '워킹투어 관광코스' 개발도 시급

누리고 있는 여세를 몰아 지역 농업소득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국 웰빙관광지로 자리 잡은 축농원에 연일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무질서하게 들어선 잡상인과 무허가 음식 및 특산물 판매점 등에 대한 정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야 하는 일도 시급한 현안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하나의 동선(動線)으로 연결하는 '워킹투어 관광코스'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일고 있는 광주광역시로의 통합도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그리 쉽지 않은 전망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설령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광주광역시

포스코패밀리 '클린오션 봉사단'

선착장 해양정화 활동

포스코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Global Volunteer Week)'를 맞아 광양지역 포스코패밀리 '클린오션 봉사단'은 지난 11·12일 광영동 도촌 선착장과 광영 하수처리장 해안가 등지에서 대대적인 해양정화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번 해양정화활동에는 김준식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한 포스코패밀리 '클린오션 봉사단'과 (사)한국수난안전협회 전남지부 광양지구대·광양시 어민회·여수 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수정정화활동 전문 봉사단인 '클린오션 봉사단'은 직접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속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중부취재본부=김정수기자 choung47@



백로의 미꾸라지 사냥

백로 한 쌍이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들녘에서 미꾸라지 사냥을 하고 있다. 황새목 왜가리과에 속하는 백로는 쇠백로·중대백로·황로·노랑부리백로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강진군 제공)

"12억 공장기기 2억원에 헐값 매각"

대한염업조합 前 이사장 수사외뢰

임시절 염전과 토지 등을 헐값에 매각해 6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지난 1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3월 사이에 8만가마의 소금을 집중적으로 출하, 4월 1일 인수시점시 재고량이 5만 6000여가마 부족해 4억4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염업조합 측은 현재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으나 A씨가 관련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부 계약 서류도 제3자를 통해 입수하는 방법으로 사금과금을 집계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합 측은 A씨와 B씨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계약 서류 자체가 위조라는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로 이행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대한염업조합 전직 이사장이 수십억원대의 공장기기 등을 불법으로 처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대한염업조합과 조합원에 따르면 전 이사장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중계약 등 불법으로 3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의 공장기기를 2억원대에 서울 모 업체에 매각하는 등 조합에 10억대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이사장 A 씨는 조합이 영양군 삼호읍 대불산단에 위치한 대지와 공장기기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45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의 사전동의나 이사회 및 대의회의 결의절차를 무시했다.

대한염업조합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지난 4월 인지하고 전 이사장 A 씨를 상대로 완만히 해결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A 씨와 친척 관계인 B 씨가 새몸계 나타나 '본인이 공장기기 일체를 계약했다'며 '자신의 물건이니 사용할 수 없다'고 공장동 임구를 트럭으로 막고 4일째 점거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조합측의 확인작업 결과 A 씨는 재

영산강 희망 메시지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홍규)는 오는 20일까지 영산강의 희망 메시지 전달에 앞장설 대학생 서포터즈(Supporters)를 모집한다.

지원방법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www.4rivers.go.kr) 또는 K-water(www.kwater.or.kr)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hyn0309@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다. /송기동기자 song@

'5대 핵심공약 실천'

화순군 계획안 마련

화순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중단 없는 화순발전과 새로운 융성의 시대 준비를 위한 '5대 핵심공약 실천 계획 수립 회의'를 개최했다.

실과산소장과 서무담당들이 모두 참석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잘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정운명 신본정영, 대인동 소방사건·리엔)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울공인중개사
☎(063)583-7788 ☎010-8004-5900
(전복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새만금 - 변산 - 고사포 - 적포 - 상록 - 모항 - 해수욕장까지의 부지 빌트업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자 2억 이상 가능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비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부자 최적합.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기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급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내대지

- 서구 송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근편사 1,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가가 3.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지.

식당, 전원주택

- 광산구 신암동 호남대역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요령. 조양양호.
-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식당, 사옥

- 서구 마곡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37㎡. 연면적(2층)400.2㎡. 매가가 11억.
- 서구 농성동 구 한전앞 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매가가 11억.

전원주택

- 북구 화양동 대지433㎡. 전임1,994㎡ 구 주택2동. 매가가 1억8000만원. 조양 경관양호.

내대지(주택)

- 광산구 신촌동(송정공영부근) 대지407㎡. 제2종일반주거지역. 차량진입가능. 매가가 1㎡당 25만원. 남향.

건물구합(병원,요양원, 리모델링용)
광주시내 전지역. 연면적1,000평이상.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김영희
☎062)364-8700 H. P.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남구	신촌동	50A	118/36	1억2천	8천4백
	주심동	명지	158/48	1억3천	9천1백
	전원동	삼양지	105/32	1억1천5백	8천

▶**상가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서구	성동동	217/449	2억4천5백	1억2천7백	3천7백
	성동동	832/174	18억2천3백	12억2천7백	3천7백
	성동동	205/325	3억4천2백	2억4천2백	3천7백

▶**근린상가**

지역	소재지	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남구	월곡동	125평	11억2천	6억1천7백	무상임대
	봉곡동	18평	5천2백	2천7백	리엔상가
	송학동	30평	1억2천	6천7백	아파트단지상가

▶**근린시골**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남구	우산동	554/1011	9억2천8백	6억2천5백	6억2천5백
	우산동	2966/373	9억2천7백	6억2천5백	6억2천5백
	월곡동	1492/997	22억	15억4천	

▶**농촌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남구	월곡동	284/527	12억4천2백	8억2천9백	8억2천9백
	금남동	284/926	7억1백	4억2천9백	4억2천9백
	금남동	317/1220	17억4천1백	7억2천9백	7억2천9백

▶**원룸/빌라/다세대/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남구	신촌동	340/1085	8억5천7백	5억2천9백	5억2천9백
	신촌동	462/697	7억1천4백	4억2천9백	4억2천9백
	지산동	145/44	2억7천	1억2천9백	1억2천9백

▶**부지(전/답/임야/대지)**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남구	관음동	2188/856	7천9백	5천	5천
	관음동	651/796	8천	5천9백	5천9백
	관음동	6790/2054	13억2천7백	9억2천9백	9억2천9백

▶**주택**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남구	도사동	595/211	4천8백	6천3백	6천3백
	오촌동	813/362	9천	3천9백	3천9백
	사서동	410/352	4억3천5백	5천1백	5천1백

• 위치: 범원입찰장 건너편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상환)-평도(이사)